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꾸며 주는 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선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제1저자)

박혜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III.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꾸며 주는 말의 구현 양상
- IV. 꾸며 주는 말 교육에 관한 FGI 결과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꾸며 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 초등학교 한정의 특수한 개념어이자 용어이다.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한 6차 교육과정부터 지금의 ‘꾸며 주는 말’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꾸며 주는 말’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해 왔다. 꾸며 주는 말의 적절한 사용은 초등학교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저학년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기 영역의 문장 쓰기와 연계하여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sup>1)</sup>

문장 성분으로 보면 꾸며 주는 말은 수식어로, 관형어와 부사어의 범위

---

1)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4학년 말하기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를 포괄한다. 그런데 역대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관형사(성상, 지시, 수량), 용언의 관형사형, 성분 부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으로 한정해 왔다. 초등 저학년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한 단어이면서 전형적인 관형어, 부사어의 모습을 가진’ 꾸며 주는 말만을 다루고자 한 것으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러한 제한이 학습자의 언어 직관과 충돌하면서 수업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sup>2)</sup> 나아가 사례의 제한으로 인해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생성한다.’라는 당초의 교육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부사어 발달 특성을 연구한 이영신(1999),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꾸며 주는 말에 관해 논의한 강혜영(2007) 이후의 관련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였다.<sup>3)</sup>

이에 본고는 꾸며 주는 말과 관련한 교육의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더하여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FGI를 진행하여 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유의미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2023년 우연한 기회에 ‘꾸며 주는 말’에 관한 수업 장면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당시 교사는 ‘운동화’ 앞에 꾸며 주는 말을 넣어 표현을 확장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은 “갈색 운동화”, “홈플러스에서 산 운동화”와 같은 답을 하였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한정된 꾸며 주는 말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었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글자의, ~한’ 형식의 꾸며 주는 말을 다시 찾아보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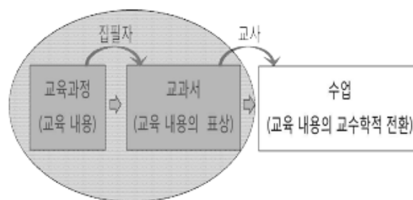
3) 꾸며 주는 말이 논의의 핵심은 아니나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묘사하기의 일부로서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수업을 실행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한 오지은·임나경(2024)의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먼저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꾸며 주는 말’이 교육 내용화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꾸며 주는 말의 정의, 범위, 교육 내용의 변화 지점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 주는 말에 대한 교수·학습 국면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였다.<sup>4)</sup>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집단 내 참여자 간에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층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의견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Vaughn, Schumm, & Sinagub, 1996)에서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내용과 방향을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FGI에 참여하는 집단을 구성할 때는 참여자 선정부터 집단의 구성 및 크기에 유의해야 한다(서영진, 2015: 117). 이에 본 연구는 교직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교실 현장에서의 교과서 사용 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된 교사

- 4) 양영희(2017)에서 언급한바, 교육에 대한 고찰은 교육 방향과 요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으로 표상한 교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수업’이라는 살아 있는 맥락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꾸며 주는 말’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과 함께 교수·학습의 주체 중 하나인 현장 교사의 경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꾸며 주는 말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교육의 과정 체계(양영희, 2017: 159)

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꾸며 주는 말을 교육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 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국어 교육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초등 국어 교과서 집필진)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때 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위해 그룹별로 일정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하였다.<sup>5)</sup>

〈표 1〉 전문가 그룹 인터뷰 관련 정보

그룹	면담 일자	분류 기호	교직 경력	연령	성별	지역
(가)	2024년 10월 11일(일) 1시간	교사 (1)	16년 8개월	40대	여	부산
		교사 (2)	14년	30대	여	서울
		교사 (3)	13년	30대	여	순천
(나)	2024년 10월 15일(화) 1시간	교사 (4)	11년 8개월	40대	남	서울
		교사 (5)	11년 8개월	30대	여	서울
		교사 (6)	11년 6개월	30대	여	서울
(다)	2024년 10월 17일(목) 1시간	교사 (7)	8년 2개월	30대	여	서울
		교사 (8)	5년 1개월	30대	남	서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는 총 8명으로, 2-3명의 교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실시간 면담(Zoom)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집단별로 1회씩 약 1시간가량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FGI의 목적 및 절차, 꾸며 주는 말의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의 내용 등을 안내하여

5) (가) 집단의 경우 참여자 전원을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며, 교과서 집필 경험을 가진 교사로 구성하였다. 이 집단의 교사들은 국어교육 전문가로서 꾸며 주는 말과 관련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다)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고, 학술적·정책적 경험이 적은 교사로 구성하였는데, 이 집단의 교사들은 ‘일반적인’ 교사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바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논의의 실제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공동 연구자가 상호 협의한 문항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른 연계 질문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는 반구조화 면담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질문은 크게 3가지로 꾸며 주는 말의 교육적 필요성 및 목표, 꾸며 주는 말 교육 시 어려웠던 점,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교육 내용의 개선점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2〉 FGI 질문 내용

문항	질문 내용
1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꾸며 주는 말' 단원의 교수·학습 목표(교육적 필요성)
2	'꾸며 주는 말' 단원을 가르칠 때 어려웠던 점(학습자 측면의 어려움 포함)
3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교육 내용(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차원)의 개선 방향

연구자들은 FGI 진행 과정에서 질문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추가 질문을 하는 정도로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FGI 실시 과정에서 연구자가 개입하는 정도가 높을 시 연구자의 의견이 참여자 간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견해보다는 연구자의 편견을 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참여자의 의견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서영진, 2015: 119). 참여자들의 의견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동시 기록하였다.<sup>6)</sup>

분석은 연구 자료의 질적 접근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범주화(Stevens, 1946)를 시행하기 위해 Elo & Kyngäs(2007)에서 제시한 '개방 코딩

6) Flick(2002/2009: 306-307)에서는 녹음한 것을 전사하며 극단적으로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한다는 자연 과학의 이상에 해석적인 사회 과학을 구속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 문자를 변환하는 것보다는 자료 분석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범주 형성 → 추상화'의 귀납적 접근 절차를 따랐다. 먼저, 개방 코딩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sup>7)</sup> 1차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여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범주화의 목적은 비슷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들을 높은 차원의 범주로 묶어서 범주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145). 이후 다시 하위 범주를 대상으로 하여 2차 범주화 작업을 거친 후 상위 범주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추상화 단계는 주범주 형성을 기반으로 더욱 보편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이다(Robson, 1993). 이상의 일련의 단계를 통해 도출된 상위 범주에 따라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III.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꾸며 주는 말의 구현 양상

#### 1. 교육과정에 제시된 꾸며 주는 말의 개념 및 내용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

7) 본고는 교사의 면담 내용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필요에 따라 단어, 구,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방식의 의미 단위 추출을 시도하였다. Krippendorff(2004)에 따르면 질적 분석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 문단의 핵심 내용을 필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특히 연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내용을 범주화하는 코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범주화를 위해 단어부터 전체 맥락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범주화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표 3〉 교육과정에 제시된 꾸며 주는 말 관련 내용

차수	꾸며 주는(꾸미는) 말 관련
6차	(1학년) -쓰기: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언어: 문장에 꾸미는 말을 덧붙여 자세한 문장을 만든다. (2학년) -쓰기: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언어: 문장에 꾸미는 말들을 넣어 보고 각 문장의 뜻의 차이를 말한다.
7차	(2학년) -국어지식: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기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을 찾는다. (심화) 문장에 꾸며 주는 말을 덧붙여 뜻이 자세한 문장을 만든다.
2007 개정	(4학년) -말하기: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내용 요소의 예)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기
2009 개정	
2015 개정	(1-2학년)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해설)(전략) 한두 문장으로 짧막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또한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2022 개정	(1-2학년) 쓰기에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해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방법,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초등 2학년 국어지식 영역에 배치하고, 비교적 자세히 그 설정 의도를 기술한 7차 교육과정의 해설을 살펴보면, 이 성취기준이 문장의 구조가 아닌 ‘꾸며 주는 말의 기능 이해 및 그것을 활용한 풍부한 표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이 내용은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아는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꾸며 주는 말의

개념 알기, 꾸며 주는 말의 종류 알기, 종류에 따른 꾸며 주는 말의 기능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기본 활동은 문장에서 꾸며 주는 말을 찾아봄으로써 꾸며 주는 말이 무엇이며, 꾸며 주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인 데 비하여, 심화 활동은 낱말에 꾸며 주는 말을 덧붙여 뜻이 자세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알게 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中(밑줄은 연구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꾸며 주는 말’은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문장 표현’의 하위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한 문장 구성 능력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2) 한두 문장으로 짚막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또한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中

(3)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방법,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中

이상의 내용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꾸며 주는 말’의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표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인식은 FGI에 참여한 교사들 간에

도 ‘풍부한 표현, 쓰기 능력’ 등의 키워드로 수렴되었다. 교사들 역시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를 문장을 문법적,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능력’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꾸며 주는 말’ 단원의 교육 목표를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 사례이다.

(4) 글쓰기를 하면 ‘엄청, 정말, 매우’ 정도만 많이 쓰는데, 다양한 꾸며 주는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쓰는 경험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교사 (8))

(5)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게 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요. 애들이 너무 간단하게 쓰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측면에서도,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도 필요해요. (교사 (7))

(6)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3))

이상을 고려하면 ‘꾸며 주는 말’과 관련한 교육 내용 설계 시 문법 지식 체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초점화하여 성취기준에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에서는 ‘꾸며 주는 말’과 문장 성분으로서의 ‘수식어’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에 교과서 기술 및 교사·학습 운영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2. 교과서에 구현된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내용

### 1) 6차 국어과 교과서

6차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

년 1학기에서 꾸며 주는 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바 이 시기에는 꾸며 주는 말이 아닌 ‘꾸미는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역대 교육과정 중 꾸며 주는 말을 가장 여러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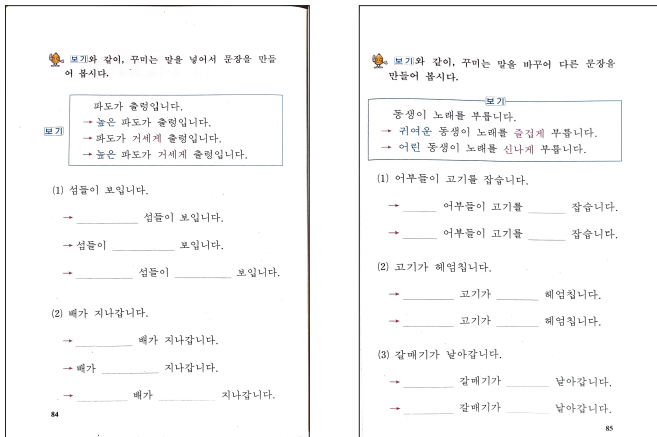
〈표 4〉 6차 국어과 교과서의 차시 구분

학년/학기		관련 학습 목표		관련 성취 기준
1학년	1학기	10. 전화	•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1학년] - 쓰기: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 언어: 문장에 꾸미는 말을 덧붙여 자세한 문장을 만든다.
	2학기	4. 차 조심 사람 조심	• 꾸미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9. 가을 이야기		
		13. 내 동생		
2학년	1학기	3. 봄노래	•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나타내어 봅시다.	[2학년] - 쓰기: 주어진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 언어: 문장에 꾸미는 말들을 넣어 보고 각 문장의 뜻의 차이를 말한다.
		14. 산바람 강바람	•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글로 써 봅시다.	
		15. 바다에 가서	• 꾸미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2학기	2. 말의 재미	•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써 봅시다.	
		6. 가을	• 꾸미는 말을 넣어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하여 봅시다.	
3학년	1학기	3. 봄소식	•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나타내어 봅시다.	
		16. 말의 세계	• 꾸미는 말을 넣어 실감 나게 표현하는 글을 써 봅시다.	

1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는 ‘거북이가 ‘엥금엥금’ 기어갑니다.’, ‘새가 ( ) 날아갑니다.’와 같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한 단어 정도의 꾸며 주는 말

을 생성하게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 문장에는 부사 ‘엿금엿금’이 제시되어 있지만 특별한 형식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어지는 1학년 2학기 교과서 ‘4. 차 조심 사람 조심’에서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동물원에서 ( ) 기린을 보았습니다.’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말을 다루고 있으며, ‘9. 가을 이야기’에서와 ‘13. 내 동생’에서는 각각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는 ( ) 동생과 ( ) 놀았습니다.’처럼 1학년 과정에서 배운 바를 종합하여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말을 한데 써넣도록 하고 있어 나뭇의 연계와 위계를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학년에 이르면 꾸며 주는 말의 학습량은 더욱 증가하는데, ‘3. 봄노래’에서는 ‘과룩과룩, 방글방글, 오순도순’을 ‘흥내 내는 말’로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흥내 내는 말로 지칭하든 꾸미는 말로 지칭하든 학습 목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실감 나게,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14. 산바람 강바람’에서는 ‘산이 높다. → 높은 산’, ‘바람이 시원하다. → ( ) 바람’처럼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꾸며 주는 말을 잘 생성하지 못할 경우 일차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구조의 문장을 만든 후에 수식 구조로 바꾸어 보는 전개가 도움이 될 것이다. ‘15. 바다에 가서’의 활동은 앞선 1학년 교과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다음 장면처럼 한 문장을 대상으로 꾸며 주는 말을 단계적으로 넣어 통합해 보도록 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또한 하나의 문장을 대상으로 꾸며 주는 말을 다양하게 생성해 보도록 한 점도 학습자의 어휘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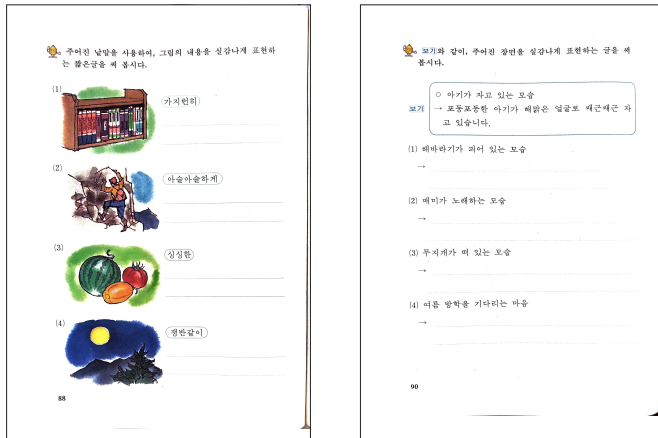


〈그림 3〉 6차 2학년 1학기 '15. 바다에 가서' 교과서 일부

2학년 2학기 교과서 '2. 말의 재미'에서는 제시된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기,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하여 그림의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기 등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6. 가을'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 우리 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 우리 반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와 같이 1학기 교과서에서 제시한 활동과 유사한 내용을 한 번 더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 반'과 같은 두 어절 명사구가 '아이들'을 꾸미는 예시를 보여 주고 있어 꾸며 주는 말을 한 단어 형식으로 제한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꾸며 주는 말의 학습이 마무리되는 3학년 1학기 '16. 말의 세계'의 교과서 활동을 보면 꾸며 주는 말의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의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꾸며 주는 말을 배운 학습자는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하며, 이 단원의 마지막 활동에서는 특정 그림을 보고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한 편의 짧은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6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역시 꾸며 주는 말의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같은 내용이라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면서도 실감 나게 표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6차 3학년 1학기 '16. 말의 세계' 교과서 일부

## 2) 7차 국어과 교과서

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2학년 1학기, '3단원 꿈을 펼쳐요'에서 꾸며 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 전체를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꾸며 주는 말을 쓰면 좋은 점을 알게 하는 활동부터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 쓰기, 시 완성하기,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7차 2학년 1학기 3단원의 차시 구분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관련 성취 기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글을 쓸 수 있다.	1. 말의 재미	1.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할 수 있다.	〔국어지식〕 문장 안에서 꾸며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2.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글을 쓸 수 있다.	
	2. 즐거운 마음	3.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그림의 내용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다.	【기본】 •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을 찾는다.
		4.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시를 완성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5.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글을 쓸 수 있다.	<b>【심화】</b> • 문장에서 꾸며 주는 말을 덧붙여 뜻이 자세한 문장을 만든다.
	6.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글을 쓸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직 대상의 특성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사실만 말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자세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단원의 주안점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하여 언어 발달 단계상 2학년 학습자는 내용이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쓰므로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자세하고 긴 문장을 쓸 수 있음을 언급하며 꾸며 주는 말의 교육적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단원을 통어하는 성취기준은 ‘국어지식’ 영역에 속해 있으나 구현된 목표와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풍부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쓰기 능력과 긴밀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학습자가 꾸며 주는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를 ‘대상의 특징을 잡아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어휘량 부족’, ‘표현 능력 부족’의 세 가지를 들며 각각에 대한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표현 능력 부족에 대한 보충 지도 방법을 서술한 (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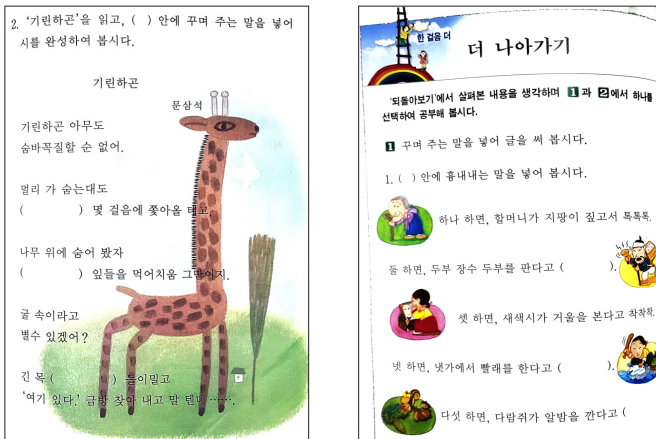
(7) (중략) 셋째, 표현 능력 부족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도서에서는 표현 능력 부족의 원인을 문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교과서 활동을 보면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된다. 예컨대 2번 활동의 첫 번째 괄호의 경우 ‘멀리 가 숨는대도 (     ) 몇 걸음에 쫓아올 테고’와 같이 수식하는 대상이 명확



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기 쉬울뿐더러 무엇보다 2학년 학습자에게 해당 문장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착한, 파란, 예쁜, 즐거운’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 ‘참, 자주’와 같은 부사, ‘흥겹게, 아름답게’처럼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 ‘둥실둥실, 한들한들’처럼 흉내 내는 말로 지칭하고 있는 부사 등을 꾸며 주는 말로서 다루고 있는데, 상술한 활동을 해결하기에는 사례가 한정적이다. ‘더 나아가기’의 1번 활동 역시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나 흉내 내는 말이 문장을 마치는 서술어 역할을 하게끔 상정되어 있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 7차 2학년 1학기 3단원 교과서 일부

### 3) 2007 개정 국어과 교과서

2007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4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쓰기, '1단원 생생한 느낌 그대로'에서 꾸며 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와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이 통합된 단원이며, 말하기 영역의 내용 요소로서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07 개정 2학년 1학기나 9단원의 차시 구분

단원 학습 목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성취 기준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 나게 말하거나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	1.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과 나를 관련지어 말하기	말하기(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2-3. 이야기 듣고 내용 간추리기,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골라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4-5.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알기, 독서 감상문 쓰기	문학(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6. 독서 감상문 고쳐쓰기, 독서 감상문 칭찬하고 발표하기	

교과서에서 꾸며 주는 말은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 나게 말하기’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단원에서 꾸며 주는 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에 제시한 활동이 전부인 데다, 꾸며 주는 말의 예시 또한 풍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5.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실감 나게 말하였는지 생각하여 보고, 그 까닭을 말하여 봅시다.

신랑이 바늘에 꿰어 있는 망자에 앉을 뻔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장말이가 바늘에 꿰일까 봐 조마조마했어. 내 장말이가 라면먹을 것 같더라니까.

나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장말이가 뽀족뽀족한 바늘에 꿰일까 봐 조마조마했어. 내 장말이가 라면먹을 것 같더라니까.

“뽀족뽀족한”처럼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 나게 말할 수 있어요.

1. 마루가 쓴 독서 감상문을 읽고, (1)~(5)의 순서에 따라 고쳐 써 봅시다.

임금님, 견우와 직녀를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를 읽었다. 두부가 서로 **비리져** 살아야 하는 슬픈 이야기이다. **어머니께서도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한다.**

견우와 직녀는 결혼을 한 뒤에 얻은 하지 않고  눈리만 다녔다. 임금님은 화를  내며 두 사람에게 일년에 한 번만 만나라는 벌을 내렸다. 비록 견우와 직녀가 잘못을 하였지만 임금님도 너무하였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슬펐으면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을까? 만나기는 하였지만, 온화수 때문에 임금도 잘 못 수 있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는 두 사람의 슬픔이 이해가 **간다**. 까치와 까마귀 대신 백조와 같은 예쁜 새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견우와 직녀도 잘못을 뉘우쳤을 것이다. 이제는 임금님도 두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살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4) 빨간색으로 쓴 ‘사랑하는’처럼  안에 꾸며 주는 말을 써 봅시다.

〈그림 6〉 2007 개정 4학년 1학기 듣기·말하기·쓰기 1단원 교과서 일부

5번 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서에서는 (8)과 같이 여자아이의 발화에서 ‘뽀족뽀족한, 조마조마, 따끔따끔’을 꾸며 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조마조마’라는 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마조마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이기에 꾸며 주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끔따끔’의 경우에는 ‘따끔따끔한’과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꾸며 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4학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때, ‘뽀족뽀족한 바늘’은 꾸며 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인지되는 반면 ‘따끔따끔한 것 같더라니까’의 경우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8)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고 무엇이 다른지 말하여 봅시다. (여학생의 말에는 ‘뽀족뽀족한’, ‘조마조마’, ‘따끔따끔’ 같은 낱말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의 지도서에서는 (9)와 같이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별다른 기준이나 제한 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9)는 <그림 6>의 (4)번 활동에 대한 지도서 내용인데 용언의 관형형, 명사, 부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 명사에 조사 ‘같이’를 결합한 형태 등 꾸며 주는 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빨간색으로 쓴 ‘사랑하는’처럼 □ 안에 꾸며 주는 말을 써 봅시다. (하루 중 일, 빈둥빈둥, 매일매일 등/ 버럭, 무섭게, 벼락같이 등)

#### 4) 2015 개정 국어과 교과서

2015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2학년 1학기, ‘9단원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에서 꾸며 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원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과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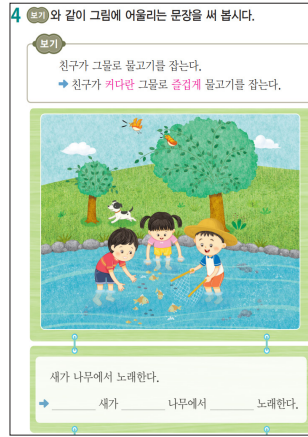
〈표 7〉 2015 개정 2학년 1학기-나 9단원의 차시 구분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관련 성취 기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내어 봅시다.	1-2.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안다.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3-4.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5-6. 주요 내용을 확인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7-8.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9-10.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할 수 있다.	

1-2차시에서는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느낌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꾸며 주는 말의 교육적 필요성과 목표를 들여다볼 수 있다. 더하여 교과서에서는 꾸며 주는 말을 책 선생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0) ‘노란’이나 ‘굵은’과 같이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어 그 뜻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을 꾸며 주는 말이라고 해요. ‘주룩주룩’이나 ‘후드득’처럼 흥내 내는 말도 꾸며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10)에서 보듯 ‘꾸며 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로서, 흥내 내는 말까지 꾸며 주는 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2015 개정 2학년 1학기-나 9단원 교과서 일부

다만 꾸며 주는 말이 교육 내용화된 장면을 살펴보면, 〈그림 7〉의 3, 4번 활동에서와 같이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성분 부사, 어미 ‘-게’에 의 용언의 활용형으로 꾸며 주는 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는 (11)의 지도서 서술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1) 이 단원에서 지도하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는 부사어와 관형어 가운데에서 성상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성분 부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으로 한정한다.

전술한 책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꾸며 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어 그 뜻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로 그 정의가 포괄적이다. 그럼에도 교과서 활동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에 만일 학습자가 4번 활동에서 ‘아기 새가 초록 나무에서’와 같이 표현하게 된다면 교과서에서의 지도하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넘어서는 오답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8)</sup>

8) 오지은·임나경(2024: 249)에서도 학습자들이 쓴 꾸며 주는 말이 교과서와 지도서에서의

이뿐만 아니라 관형사 중에서도 성상 관형사만 꾸며 주는 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

5) 2022 개정 국어과 교과서

2022 개정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2학년 1학기, ‘3단원 겪은 일을 나타내요’에서 꾸며 주는 말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은 쓰기와 문학 성취 기준이 통합된 것으로, 꾸며 주는 말은 소단원 1인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 쓰고 읽기’에 구현되어 있다.

〈표 8〉 2022 개정 2학년 1학기가 3단원의 차시 구분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관련 성취 기준
자신이 겪은 일을 문장과 글로 표현하기	준비	1-2. 배운 내용 살펴보기	[2국03-02] 쓰기에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4]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을 자유롭게 쓰고, 쓴 글을 함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눈다. [2국04-03] 문장과 문장 부호를 알맞게 쓰고 한글에 호기심을 가진다.
	1.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 쓰고 읽기	3-4.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 쓰기	
		5-6.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간 문장 읽기	
	2.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일기 쓰기	7-8.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	
		9-11.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 쓰기	
	실천	12-13. 배운 내용 실천하기	
		14-15. 마무리하기	

지도서에서는 단원의 지도 유의 사항으로 (12)와 같이, 교과서의 책 선 생님 역시 (13)처럼 설명하고 있어 2015 개정 교과서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관형사의 범위가 성상 관형사뿐이었던 반면 2022 개정 교과서에서는 지시 관형사, 수량 관형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

꾸며 주는 말의 범위에 들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12) 이 단원에서 사용하는 꾸며 주는 말은 관형사(성상, 지시, 수량), 용언의 관형사형, 성분 부사,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으로 제한한다.

(13) ‘넓은’, ‘포르르’와 같이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을 꾸며 주는 말이라고 해요.

**1.** 그림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꾸며 주는 말에 ○표를 해 봅시다.



(노란, 예쁜)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



(튼튼한, 멋진) 거북선이 바다에 나간다.


**2.** 1에서 고른 꾸며 주는 말과 그 말을 고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산 색깔을 보고 노란 우산이라고 했어.

우산 모양을 보고 예쁜 우산이라고 했어.

**5.** 4번에 있는 꾸며 주는 말을 골라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써 봅시다.

빠르게 화려한	커다란 뜨거운	시커먼 멋있는	붉은 넓은
------------	------------	------------	----------



꾸며 주는 말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
넓은	우리호가 <b>넓은</b> 하늘로 발사되었다.

〈그림 8〉 2022 개정 2학년 1학기가 3단원 교과서 일부

그러나 교과서 내에서는 지시 관형사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게’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 성분 부사만 드러날 뿐이며, 관형사는 부재하다. 또 1, 2번 활동에서 ‘노란 우산’을 제시하면서 색깔과 관련된 꾸며 주는 말을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 있지만, 만일 학습자가 ‘빨강 가방’이라고 할 경우 명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따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더하여 5번 활동에서 학습자가 ‘멋있는 커다란 로봇이 발사되었습니다.’와 같이 표현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도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두 개 이상의 낱말을 결합해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 IV. 꾸며 주는 말 교육에 관한 FGI 결과 분석

본고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가 꾸며 주는 말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꾸며 주는 말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였고,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꾸며 주는 말’ 단원의 교수·학습 목표(교육적 필요성)
- ‘꾸며 주는 말’ 단원을 가르칠 때 어려운 점(학습자의 어려움 포함)
-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교육 내용(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전 차원에서) 개선 방안

첫 번째 논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를 ‘표현 능력 신장’에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앞서 3장 1절에서 사례와 함께 상세 기술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를 ‘표현 능력 신장’에 두는 관점에서, 상술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의 사항, 즉 꾸며 주는 말 교육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꾸며 주는 말’ 단원 교수·학습의 어려움

‘꾸며 주는 말’ 단원을 가르칠 때 어려웠던 점에 대한 교사 의견을 분석한 결과 총 8개의 세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한정 문제’,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 문제’, ‘꾸며 주



는 말 교수·학습의 연속성, 연계성 부족의 문제'의 3개의 상위 범주로 수렴할 수 있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꾸며 주는 말 단원 교수·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범주화 결과

의미 단위 추출 <sup>9)</sup>	→	주제	→	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명사 수식 구조의 꾸며 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음.</li> <li>• 명사가 명사를 꾸며 주는 형태로 쓴 경우 지도가 어려움.</li> <li>•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꾸며 주는 말을 많이 씀.</li> </ul>	→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사용	→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한정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형태로 꾸며 주는 말을 쓰는 경우 지도가 어려움.</li> <li>• 구 형태로 꾸며 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음.</li> <li>• 구 형태로 꾸며 주는 말을 쓰면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 안 되고 한 단어로 써야 한다고 지도함.</li> </ul>	→	두 어절 이상으로 이루어진 꾸며 주는 말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개념과 지도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가 상충됨.</li> <li>• 꾸며 주는 말의 개념이 모호함.</li> <li>• 어떤 꾸며 주는 말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왜 안 되는지를 이해시킬 수 없음.</li> </ul>	→	꾸며 주는 말의 개념과 범위의 상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교과서, 지도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를 생성함.</li> <li>• 앞에 붙은 말은 모두 꾸며 주는 말이라고 생각함.</li> </ul>	→	학습자의 언어 직관과 교육 내용의 괴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적인 범위를 내세워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제한하니 풍부한 표현 생성의 교육 목적과 어긋리지 않음.</li> </ul>	→	교육 목표와 꾸며 주는 말의 문법적 범위와의 상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에 꾸며 주는 말의 사례가 몇 개 없음.</li> <li>• 꾸며 주는 말의 예가 한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진부하고 전형적임.</li> <li>• 교과서상 꾸며 주는 말의 예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li> <li>• 학생들이 꾸며 주는 말을 다양하게 쓰지 못함.</li> </ul>	→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전형성, 한정성, 반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사례와 그에 따른 지도 방안이 상세화될 필요가 있음.</li> </ul>	→	꾸며 주는 말 지도 방안의 상세화	→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성 문제

9) ‘명사 수식 구조,’ ‘구 형태의 꾸며 주는 말’ 등이 적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FGI 참여 전문가의 말을 직접 옮긴 것이기에 수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명사 수식 구조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 형태로 꾸며 주는 말’은 두 어절 이상의 형식이 꾸며 주는 말로 쓰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지속적인 지도가 어려움.</li> <li>•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는 학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평소 글쓰기에 전이가 되지 않음.</li> <li>•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움.</li> <li>• 꾸며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실질적 학습 활동이 필요함.</li> </ul>	<p>꾸며 주는 말의 단절적, 비전이적 학습</p>	<p>꾸며 주는 말 교수· 학습의 연속성, 연계성 부족의 문제</p>
---	--------------------------------------	--

### 1)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한정

꾸며 주는 말을 가르칠 때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꾸며 주는 말’의 개념적 모호성, 그리고 ‘꾸며 주는 말’의 인위적인 범위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14) ‘벚꽃 나무’를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물 위주로 생각이 나니까 단풍나무, 은행나무를 먼저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오답이라고 정정하기에는 애매하죠. “벚꽃이 나무를 꾸며 주는 거 아니예요?”라고 하니깐, 꾸며 준다는 말만 보면 맞으니까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 가르칠 때는 애들이 꾸며 주는 말을 구 형태로 쓰면 그런 것들은 꾸며 주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 해서 나중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사물,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꾸며 주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애들이 왜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만요... (교사 (8))

(15) 아이들이 꾸며 주는 말을 구 형태로 썼을 때 이것도 꾸며 주는 말이기는 하나 2학년 수준에서는 배우지 않으니까 다른 예시를 들어 보자고 지도했어요. 그런데 구 형태 역시 꾸며 주는 말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고학년에 가서 배운다고 언급했어요. 이런 부분은 지도서 유의 사항에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교사 (6))

(16) 교과서는 지도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 따른 꾸며 주는 말만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표현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예를 볼 수 있어요. 이 때, 교사는 문법 용어 등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문법적 연계성보다는 풍부한 표현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요. (교사 (1))

(17) 실제 현장에서 이 단원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이에요. 그 까닭은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꾸며 주는 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빨간 사과’를 기대하는 교과서와 ‘엄마가 시장에서 산 사과’를 쓰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어요. 교수·학습에 앞서 충분한 활동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2))

“‘빨간 사과’를 기대하는 교과서와 ‘엄마가 시장에서 산 사과’를 쓰는 학습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라는 언급은 꾸며 주는 말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다루는 ‘꾸며 주는 말’은 ‘한 단어, 용언의 관형형, 용언의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식, 혹은 의성어나 의태어’ 정도의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여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들이 주로 답하는 꾸며 주는 말에는 ‘명사, 명사구, 절’ 등의 다양한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에 어떠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확신 없는’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꾸며 주는 말’의 독자적 의미만을 분석해 보면 꾸밈을 받는 말의 의미를 상세화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구, 절 등은 모두 ‘꾸며 주는 말’이 될 수 있다.<sup>10)</sup> 즉 기능적으로 후행하는 성분을 꾸며 주는 말이라면 무

10) 다음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말’의 정의를 통해 ‘꾸며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구나 절 형식을 포함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01)「4」 단어, 구, 문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적절한 말을 찾다.

엇이든 꾸며 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한 단어, 용언의 관형형, 용언의 어간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식, 혹은 의성어나 의태어’ 정도로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문법적인 개념과 독립하여 꾸며 주는 말을 다루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꾸며 주는 말을 ‘관형어, 부사어’를 포괄하는 개념 정도로 인식하는데에서 연유한다.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꾸며 주는 말’을 ‘수식언’의 개념 안에서 이해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전형적인 관형어와 부사어의 예를 꾸며 주는 말의 사례로 다루고자 한 것이다. 즉, ‘벚꽃 나무’의 ‘벚꽃’, ‘엄마가 시장에서 산 사과’의 ‘엄마가 시장에서 산’ 역시 관형어로 기능하나, 그 전형성에 있어 ‘빨간, 예쁜’과 같이 단일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붙은 형식들에 비해서는 전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특히 ‘엄마가 시장에서 산’과 같은 절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절 자체가 하나의 성분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례에서 제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사들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이러한 형식이 ‘절’이라는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그저 ‘사과’를 꾸미는 내용이라는 점을 초점화하여 ‘엄마가 시장에서 산 사과’와 같은 표현을 생성한다. ‘명사 홀로 이루어진 관형어’, ‘절로 이루어진 관형어’와 같은 인식은 어쩌면 형태·통사론적 지식을 가진 교육 설계자, 혹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가지는 기우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풍부한 표현 능력 신장’에 교육 목표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하여 학생들이 꾸며 주는 말로 제시한 요소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재 수업 장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꾸며 주는 말’을 다루는 단원의 학습 목표를 고려하면 굳이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 
-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 이번엔 ‘미안하다’는 말로는 용서가 안 된다.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2)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

교사들은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를 제한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교수·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꾸며 주는 말의 사례들이 한정적이라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18) 꾸며 주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게 한정적이에요. 교사가 예시를 많이 줘야 하는데, 교과서 지면이 제한적이라서 몇 개 없어서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교사 (6))

(19)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생들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았고,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20명의 학생 중 세 명은 한글 미해득 학생으로, 문장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학생들이 평소 구어 상황에서도 꾸며 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실 위주로 말했어요. (교사 (3))

(20) 꾸며 주는 말의 예가 한정적이고, 반복적이에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2학년 1학기 국어 나-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단원의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내어 봅시다’에서는 ‘노란 장화’, ‘비가 주룩주룩’,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등이 그 예로 제시되고 있는데, 무척 전형적인 예들뿐이에요. 교과서를 살펴보면 2022 개정은 2015 개정에 비해 조금 다양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접하는 다양한 문학 작품 등의 읽기 자료에 비해 진부하고 전형적인 예의 꾸며 주는 말들을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 (2))

(21) 교과서상 꾸며 주는 말의 예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현재 교과서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넓게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제시되는 활동에서 그 예가 제한적이고 전형적이에요. ‘반질반질, 반짝반짝, 푸른, 넓은’ 처


럼. 다만 이러한 문제는 더 많은 예를 제공할 경우에 경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음에 따른 한계로 보여요. (교사 (1))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어휘 수준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꾸며 주는 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역시 여러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 교사 또한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학습자의 어휘 수준 차이, 지도서에 제시된 한정적 사례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활동의 구성 자체가 다양한 표현의 생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2) 학습자들이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꾸며 주는 말을 알도록 하려면, 다음 활동(〈그림 9〉)처럼 단순히 배경지식으로 문장 만들기를 하게 하고 다양한 보기를 주고, 상황에 어울리는 꾸며 주는 말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교사 (2))


**3. <예>처럼 낱말을 꾸며 주는 말을 빈칸에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달기**




- 예쁜 꽃이 피었다.
- 꽃이 활짝 피었다.

**예시 답안**



- 빨간 딸기를 먹었다.
- 딸기를 맛있게 먹었다.



- 귀여운 강아지가 달린다.
- 강아지가 힘차게 달린다.

〈그림 9〉 2015 개정 2-1-가 3단원 교과서 일부

위의 교사는 현재의 교과서 활동이 단순한 배경지식으로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활동임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보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물론 보기에서 다양한 꾸며 주는 말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하게 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달힌 구조의 활

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답이 한정될 수밖에 없도록 의도한 이 같은 문항 외에 '열린 사고와 그로 인한 다양한 표현의 산출이 가능한' (23)과 같은 활동을 구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열린 맥락을 제공할 때 학생들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꾸며 주는 말을 넣은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3)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동화책, 예를 들어 김지안 작가의 '툴립 호텔'의 삽화를 제시하여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가게 문장을 말로 만들어 보거나 문장을 써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교사 (3))

### 3) 꾸며 주는 말 교수·학습의 연속성, 연계성 부족

주지한바 꾸며 주는 말은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위한 교육 요소이다. 그런데 실제 교육 국면에서는 그것이 지속적인 표현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해당 단원에서의 학습만으로 한정되는 상황임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4) 꾸며 주는 말을 지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는 학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평소 글쓰기에 전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교사 (3))

(25) 지속적인 지도가 어려워요.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꾸며 주는 말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 (2))

꾸며 주는 말과 관련된 단원이 문법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을 생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이 단원의 내용은 이후 쓰기 영역 및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계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이 때문에 반복과 심화를 통한 학

습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활동을 위한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꾸며 주는 말을 활용한 표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 2. ‘꾸며 주는 말’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

이 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꾸며 주는 말의 교육적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 꾸며 주는 말의 교수·학습 문제점, 원인,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전제는, 계속적으로 주지하였듯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꾸며 주는 말 단원의 교육 목표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표 10〉 꾸며 주는 말의 교수·학습 문제점, 원인, 개선 방향

문제	원인	개선 방향
<div>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제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언어 직관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을 수행해야 함.</li> <li>• 명사, 구, 절 형식의 다양한 꾸며 주는 말을 ‘오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li> <li>• 형식을 한정하다 보니 다양한 예시를 들어 줄 수 없어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적 관점’의 개입</li> <li>• 학습자의 수준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문법적 형식보다는 다양한 표현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사례 수용</li> <li>• ‘옳은 것, 적절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li> </ul>
↓		
<div>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꾸며 주는 말로 제시하는 사례가 한정적임.</li> <li>• 교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음.</li> <li>• 교사용 지도서에도 꾸며 주는 말의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범위 제한</li> <li>• 교과서의 ‘달린 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열어 두어 명사, 구, 절 등 다양한 형식의 꾸며 주는 말을 활용할 수 있게 함.</li> <li>• 장면 설명하기 등 ‘열린 활동’을 구안하여 다양한 꾸며 주는 말을 활용하여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유도</li> </ul>



꾸며 주는 말 교수·학습의 연속성, 연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 학습이 종료된 후 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li> <li>• 쓰기 활동, 문학 활동과 연계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쓰기 영역이나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내용을 일상적, 문학적 소통 활동과 연계하여 구성</li> <li>• 꾸며 주는 말을 활용한 표현 활동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년군 간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li> </ul>
-------------------------------------	--	--	---

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교육적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수렴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꾸며 주는 말의 형식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 이로 인해 꾸며 주는 말의 사례가 빈곤한 문제, 학년군 간 교육 내용이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문제는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에 방점을 둔다면, 꾸며 주는 말의 형식이나 범위를 문법적으로 제한하여 학습자의 언어적 직관과 어긋나는 상황을 야기하거나 교과서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극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더욱 풍부하고 자유로운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교육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꾸며 주는 말이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어져 온 전모를 분석하고, 실제 교수·학습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꾸며 주는 말은 ‘표현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있기에 6차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요 교육 요소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실

제 교육의 장면에서는 꾸며 주는 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제한’,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 ‘꾸며 주는 말 교수·학습의 연속성, 연계성 부족’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며 주는 말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주요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가 ‘문법적 인식’이 아닌 ‘표현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꾸며 주는 말을 관형어나 부사어의 여러 형식 중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꾸며 주는 말 교육의 초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활동 또한 ‘열린 활동’, ‘맥락이 주어지는 활동’ 등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 학년군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법’ 영역이 아닌 ‘표현’, ‘문학’ 영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교수·학습 지침이 상세화되어야 한다. 더하여 꾸며 주는 말의 다양한 사례 등 교수·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개선 방향이 교육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학습자들은 단순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수준에서 한 발 나아가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 역시 교수·학습 장면에서 겪는 지도의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5.01.31. 투고되었으며, 2025.02.11. 심사가 시작되어 2025.03.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혜영(2007), 「꾸며 주는 말의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어문학교육』 34, 39-70.
- 교육과학기술부(2009 ㄱ),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ㄴ), 『2009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2 ㄱ), 『제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2 ㄴ),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 ㄱ),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7 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5 ㄱ),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5 ㄴ),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ㄱ),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ㄴ), 『2022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ㄱ), 『2007 개정 국어과 교과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서영진(2015), 「국어교육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국어 교사의 인식 FGI 연구」, 『국어교육』 149, 111-143.
- 양형희(2017), 「교과서 문법 단원의 문제 인식—단어 형성단원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31, 157-179.
- 오지은·임나경(2024), 「초등 저학년 대상 장르-텍스트-문법의 묘사하기 수업에 관한 실행 연구」, 『국어교육연구』 53, 225-265.
- 이영신(1999), 「초등학교 아동의 부사어 발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호·정정훈·정상원(2016),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Elo, S. & Kyngäs, H. (2007),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 107-115.
- Flick, U. (2009), 『질적 연구 방법』, 임은미·최금진·최인호·허문경·홍경화(역). 서울: 한울아카데미(원서출판 2002).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obson, C. (1993), *Real world research: A resource for social scientists and practitioner-researchers*, Oxford: Blackwell.
- Stevens, S. S. (1946), "On the theory of scales of measurement", *Science*, 103, 677-680.
- Vaughn, S. R.,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꾸며 주는 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선희 · 박혜진

본 연구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의미를 한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가진, 초등학교 한정의 특수한 개념어이자 용어인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꾸며 주는 말에 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FGI를 진행하여 교수·학습 현장에서 꾸며 주는 말을 가르칠 때의 어려움을 ‘꾸며 주는 말의 형식적 범위 제한’, ‘꾸며 주는 말 사례의 양적 빈곤’, ‘지속적·반복적 교수·학습의 한계’로 수렴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꾸며 주는 말의 교육 목표가 ‘문법적 인식’이 아닌 ‘표현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초등 국어교육, 꾸며 주는 말, 교육과정, 교과서, FGI

##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f ‘Modifying Words’ in Element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Choi Sunhee · Park Hye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related to the concept and term ‘modifying words.’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textbook content on ‘modifying words’ and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explore challenges in teaching this concept. These challenge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the “formal scope limitation” of modifying words, the “quantitative inadequacy” of examples provided, and the “limitations of continuous and repetitive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educational objective for teaching modifying words should go beyond developing “grammatical awareness” and also focus on enhancing “expressive skills.”

**KEYWORDS**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ifying Words, Curriculum, Textbook, FGI